

김정연의 춤 활동에 관한 무용사적 의의

- 『한국무용도감』을 중심으로 -

이정노* · 이주희**

<국문개요>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권변 예기로 활동했던 김정연의 삶을 확인하고 그가 근현대시기를 거쳐 어떤 춤 활동을 했는지, 또 그가 저술한 『한국무용도감』 속의 춤 작품들이 어떤 무용사적 의의를 지니는지를 고찰한 연구다. 서도소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김정연은 문화재 지정 이후 국악계에 전념하면서 무용계에서 낯선 인물이 되었지만, 권변에서는 명무가인 이장산에게 춤을 사사했고 해방 후 1960년대 초까지 춤 활동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습과 창작 활동의 결실인 작품들은 그의 저서 『한국무용도감』에 실렸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간 무용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근현대 무용사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중요한 업적을 남긴 김정연과 그의 작품을 연구하여 근현대무용사에 있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주제어: 김정연, 한국무용도감, 우리춤의 첫거름, 성진무, 남무, 이장산, 개성예기조합, 조선권변.

目次

- I. 서론
- II. 일제강점기 김정연의 춤 학습과 활동
- III. 『한국무용도감』에 수록된 춤 작품의 재고와 의의
- IV.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춤 예인으로서 김정연의 삶을 확인하고, 그가 근현대시기를 거쳐 어떤 춤 활동을 했는지, 또 그의 춤 인생의 집약서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무용도감』에 수록된 작품이 어떤 무용사적 의의를 지니는지 가늠해 보고자 서술된 것이다.¹⁾ 고 김정연은 1971년 서도소리로 중요무형문화재(제29호) 지정을 받은 인물로 한국음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예인이다. 1913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개성 예기조합과 조선권변을 거치며 활동한 그녀는, 그러나 근현대 춤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낯선 인물이다.

오늘날 김정연은 무용사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지만 1960년대 초 고전 무용발표회를 개최하고 1959년(『우리춤의 첫거름』)과 1971년(『한국무용도감』)에 각각 무보집(舞譜集)을 출간한 것을 보면 무용에 있어 상당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 지정을 받은 1971년 당시에 『한국무용도감』이 출간된 것을 보면, 음악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에도 춤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결국 『한국무용도감』은 김정연이 자신의 춤 인생을 쏟아 부은 집결체이기에 김정연의 춤 연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김정연이 권변에서 배웠던 춤을 비롯해 해방 후 1950,60년대 창작한 작품이 설명과 함께 무보(舞譜)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무용사를 좀 더 풍부히 하고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그녀의 춤 스승이 구한말 뛰어난 기예 솜씨로 종9품의 벼슬을 하사받은 이장산(이장선)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장산의 춤 제자로는 명무가(名舞

1) 이 글은 2014년 전통공연예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전통예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권변 예기 출신인 김정연의 저서 『한국무용도감』에 수록된 춤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 김정연과 『한국무용도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원된 춤의 재현 공연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회씩 진행되었으며, 이 글은 2014년 사업(“『한국무용도감』으로 만난 예기 김정연의 춤”) 때 학술연구 결과물로 작성된 것이다. 본 글은 논문 형식에 맞춰 서론과 결론을 가쳤다.

* 제1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상임연구원.

** 제2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교수.

家) 한진옥과 판소리 명창 장관개의 동생 장수향, 그리고 남원권번 출신 예기 조갑녀가 알려져 있는데, 현재 조갑녀가 그의 춤을 전승하고 있어 이장산에 대해 좀 더 풍부한 시각도 열어줄 것이라 본다.

II장에서는 김정연이 권번에 입적한 배경부터 해방 후에 전개한 춤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한국무용도감』에 수록된 춤 작품들이 근현대시기에 어떻게 전개된 춤들인지 문헌 고찰을 통해 시대적 의미를 논구해보고자 한다.

II. 일제강점기 김정연의 춤 학습과 활동

1. 일제강점기 예기(藝妓) 김정연의 가무(歌舞) 학습 배경과 활동

김정연(金正淵 1913~1987)은 1913년 6월 26일 평양에서 김승현의 다섯째 딸로 출생했다. 평양에서 살다가 아홉 살에 개성으로 이사를 했으며, 그곳에서 정화 여중을 다녔다. 우수한 성적으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그녀는, 가계를 돕기 위해 개성 권번에 적을 두며 예기(藝妓) 활동을 하고 있던 친언니 김죽사(본명 김수영)²⁾를 따라 개성 권번에 입적을 했다.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기에 자식을 기방에 보낸 통한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화병에 걸려 세상을 뜨고 말았다.

14세에 권번 동기(童妓)로 입적하여 본격적인 가무 학습을 받게 된 김정연은 이승창으로부터 가곡과 가사를 배우고 명무 이장산에게서는 춤을 배웠다. 그리고 홍기청에게서 가야금과 양금을 배웠고, 서도소리는 당대 으뜸이었던 김철성에게서 개인지도 받았다. 김철성은 김정연이 평양에

2) 김죽사(金竹史. 1906~?)서도 명창. 가곡, 가사, 시조에도 능통했고, 양금에도 명수였다. 일제강점기 때 제비표 레코드에서 <추풍감별곡>, <이팔청춘가> 등을 취입하였다.

살던 때부터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일찍이 그녀의 재질을 알고 소리를 시켜보라고 아버지에게 권하였다고 한다.

이장산(또는 이장선)은 구한말 뛰어난 기예 솜씨로 종9품의 벼슬을 하사받은 예인이다. 이장산이 한때 남원권번에서 예기 조갑녀(1923~1915)에게 춤을 가르쳤는데, 조갑녀는 오늘날 이장산의 춤을 잇는 유일한 계승자³⁾로 자리하고 있다. 이장산에 대한 실체는 1985년에 한국일보사에서 발간한 춤 화보집 『한국의 명무』에 처음 등장하는데, 김정연⁴⁾과 한진옥⁵⁾의 춤을 소개한 지면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스승 이장산이 김정연에게 평소 춤을 잘 춘다는 칭찬을 많이 했지만 작은 키를 아쉬워했다⁶⁾는 대목이 나온다.⁷⁾ 이 일화는 김정연이 예기로 활동하던 어느 날 진사 덕 환갑잔치에서 춤추던 김정연을 보고 “딱 한 치만 더 크지!”하고 이장산이 안타까워했던 사연을 말한다. 작은 키 때문에 춤 태가 제대로 나지 않아 재주가 제 빛을 발하지 못했던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길로 김정연은 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소리에 더욱 전념했다⁸⁾고 한다.

김정연은 17세에 개성 상업학교를 졸업한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러나

3) 조갑녀는 2015년 타계했으며, 그 이후 그녀의 두 딸인 정명희와 정경희가 뒤를 잇고 있다.

4) 구히서 글·정범태 사진, 『한국의 명무』, 한국일보사, 1985, 31쪽.

5) 구히서 글·정범태 사진, 위의 책, 48쪽.

6) 구히서 글·정범태 사진, 위의 책, 31쪽.

7) 이후 이장산(이장선)에 대한 언급은 정범태가 집필한 『경서도 명인명창』(깊은샘, 2005, 438쪽)과 『한국춤 백년 1』(눈빛, 2006, 181쪽)에, 그리고 정경희의 박사학위논문 『명인 조갑녀의 민살풀이춤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73쪽)에서 나타난다. 이장산의 이름이 이장선으로도 나타나는데, 『한국의 명무』와 『한국춤 백년 1』에서는 이장산으로, 『경서도 명인명창』과 정경희의 박사논문에서는 이장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정경희의 박사논문에는 정범태의 친필로 이장산이 전남 곡성군 옥파면 을사리 세습 무가(巫家) 출신으로 춤과 취악(吹樂)으로 종9품의 벼슬을 하사받은 재인이라는 점과, 이장산의 제자로 김정연, 한진옥, 장수향, 조갑녀가 있음이 쓰여 있다.(정경희, 위의 논문, 73쪽)

8) “노래야 키와 별로 관계가 없지만, 춤은 키가 작으면 태가 안났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춤은 그만 작파하고 말았는데 선생님은 애석해 했지만 크게 꾸중은 하지 않으셨어요.” - 《음악동아》, 1986년 8월호, 168쪽.

결혼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2년 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만주로 떠났고, 7년 만에 돌아와서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병을 얻어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김정연은 결혼 직후 가무 활동을 접었지만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서울로 병원을 옮기면서 그녀의 가무 활동은 다시 재개되었다. 조선 권변에 적을 두면서(25세) 다시 연예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명월관, 국일관의 큰 무대에 섰던 조선권변의 김정연은 당시 김월색, 염산월 등과 함께 인기 절정의 예기(藝妓)였다. 연주 스케줄은 늘 밀려 있었고 매일 1백 시간 몫의 소리채를 벌어들였다. 밤의 공연 생활이 잦았던 김정연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남편은 그녀가 32세 되던 해에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⁹⁾

2. 해방 후 김정연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 예술 활동

해방 후에도 김정연은 가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예기의 신분 때처럼 연향의 공간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였다. 해방 직후 한국 최초의 여기자인 최은희(崔恩喜, 1904~1980)와의 인연은, 여성운동단체인 대한부인회(태평로)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일선으로 내보낼 군인들을 징집하기에 바빴던 한국전쟁기, 그녀는 서울시가 입대 장정 환송회를 열 때마다 대한부인회 간부로서 군인들을 위안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나라 없는 설움을 겪었던 김정연은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에든 분골쇄신 하겠다”며 군 위문 공연에 앞장¹⁰⁾섰던 것이다. 그녀는 최은희, 노천명 등과 교우를 가지며 대한부인회 회장직을 맡아 여성의 사회봉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여성 지위 향상 운동에 오랫동안 기여를 했다. 대한부인회 기관지 《풀이》의 문화부장을 지내고, 이후 불교시보사 사장(1966)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의 일을 맡아 각 교도소·감화원 등에 위문을 다니는 등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한 일에

9) 《음악동아》, 1986년 8월호, 169면.

10) 《매일경제》, 1982년 7월 17일.

쓰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연은 국가의 전통예술 발굴 사업에도 참여하여 민족 문화의 전승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했다. 1961년부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평남 대표팀을 10년 간 지도하고 뒷바라지 하는 열성을 보였는데,¹¹⁾ 이를 지켜본 장학선(張鶴仙, 1906~1970.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1965년 지정)이 “애 아우야, 대동강 물 먹은 값이라도 해야 할 게 아니니?”¹²⁾ 하는 부추김에 힘입어 다시 국악 무대로 본격적인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1971년¹³⁾ 김정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기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문화재 지정은 이렇듯 자신이 배운 전통예술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전심을 다해 지켜온 까닭으로 맺어진 결과이다. 지정 직후에는 서도소리 전수소 2개소를 열어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후계자 양성을 위해 1천만 원의 기금을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 내놓기도¹⁴⁾ 했다.

가무 뿐 아닌 문예 방면에도 소질이 있었던 김정연은, 중학교를 다니며 신학문을 배우고 시·서·화를 두루 익혔던 덕분에 그 재능도 일찍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16세에 개성의 《고려신보》에 <어린장미>라는 시를 발표하여 인정을 받았고, 해방 후 1969년에는 전국 시조 백일장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탁월한 문재(文才)를 드러냈다. 시조 시인 이태극(1913~2003)은 김정연의 글을 두고 ‘시조의 가락과 여운의 구비침을 볼 수 있다’¹⁵⁾는 높은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1976년 자신의

11) 해방 후 민속예술제 행사 관계로 서도소리를 지도하다보니 어느덧 제 자신의 기예를 다시 갈고 닦게 된 것이지요” - 《매일경제》, 1982년, 7월, 17일.

12) 《동아일보》, 1971년 8월 13일.

13) 《동아일보》 1971년 9월의 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지정이 되었다고(“작년 12월에 오복녀 여사(평양서문고여중퇴)와 함께 무형문화재 서도소리에 지정” - 《동아일보》, 1971, 9. 23.) 나와 있으나 KBS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 김정연 편에서 김정연은 “1971년 2월 9일”에 지정받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14) 《동아일보》, 1987년 2월 6일.

15) 《음악동아》, 1986년 8월호, 171면.

글들을 묶어 『빙심(氷心)』¹⁶⁾이라는 시조집을 출간하였다.

3. 춤 공연 활동과 두 권의 무용 서적 출간

김정연은 다양한 사회·문화 공간 속에서 가무 공연 활동을 지속해 갔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그녀의 첫 개인 공연으로 ‘서도소리’가 아닌 ‘고전무용’ 발표회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개인 발표는 자신이 가진 기량을 특별히 준비하고 선보이기 위한 의도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김정연이 ‘고전무용’에 대해 가졌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김정연의 <고전무용 발표회>는 1959년과 1960년에 각각 한 번씩 개최되었다.

<표 1 김정연의 고전무용 발표회>

	제1회 고전무용 발표회	제2회 고전무용 발표회
날짜	1959년 6월 26일~28일	1960년 8월 6일~8일
장소	원각사	원각사
후원	조선일보사·대한부인회	동아일보
춤 종목	<계월향의 춤춘>, <햇불의 처녀>	1부 : <연예무宴藝舞>(일명 포구락), <황진이>, <검무> 2부 : <팔도의 향토무용 순례>
출연자	20여 명의 문하생들	김정연 고전무용연구소생 40여 명

제1회 공연은 조선일보사와 대한부인회가, 제2회 공연은 동아일보가 후원하였으며 모두 3일 동안 원각사에서 개최되었다. 공연에는 김정연의 무용 문하생들, 또는 김정연의 고전무용 연구소생들이 출연하였는데 그 수가 20명, 40명으로 꽤 적지 않은 인원이 있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 공연에서 사오 세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소녀들이 출연¹⁷⁾했다는

16) ‘빙심’이란 그녀의 오빠가 지어준 아호이다. 김정연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심성 때문에 그런 호를 얻은 듯하다고 말했다. - 《음악동아》, 1986년 8월호, 170면.

17) “우리나라 고전음악무용계의 대선배인 김정연여사가 본사 및 대한부인회 서울시 본부 후원으로 26.7.8일 간에 걸쳐 원각사에서 고전무용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4세의 유녀(幼女)를 비롯한 이십 여명의 문하생들이 출연할 예정이라 한다.” -

점이 흥미로운데, 제1회 처녀 공연을 계기로 출판된 『우리춤의 첫거름』¹⁸⁾이라는 무용 서적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정연 저, 『우리춤의 첫거름』,
<春鶯舞 圖> 그림 1.



김정연 저, 『우리춤의 첫거름』,
<天安三巨里 圖> 그림 2.

총 2회의 고전무용 발표회를 열었던 김정연은, 이후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약 10년간은 공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는 <서도가무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연 활동을 재계했는데, 이는 서도소리 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로서의 발표 형식을 갖춘 타이틀이었다. 그렇다면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 김정연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앞서 살폈던 것처럼 1961년부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하는 평남 대표팀을 연출·지도하는데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간에 걸쳐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서도소리를 지도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김정연은 1971년에 서도소리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김정연은 ‘서도가무 발표회’라는 타이틀 속에서도 ‘춤’ 공연을 이어갔다.

《조선일보》, 1959년 6월 20일.

18) 김정연, 『우리춤의 첫거름』, 세문사, 1959.

<표 2. 김정연의 서도가무 발표회>

	제1회 서도가무 발표회	제2회 서도가무 발표회	제3회 서도가무 발표회	제4회 서도가무 발표회 ¹⁹⁾
날짜	1971년 9월 24일	1974년 9월 24일	1976년 5월 8일	1977년 6월 27일
장소	국립극장	예술극장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극장 소극장
후원	동아일보사, 문화재단리국, 평남도청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문화재단리국, 평남도청	동아일보, 동아방송
춤 종목	<무고>, <가야선무>, <검무>, <북춤>	<계월향의 충혼>	.	.

<서도가무 발표회>는 매년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제4회²⁰⁾를 제외하고 모두 하루 동안 낮과 밤 2회로 진행되었다. 특기할 점은 서도 ‘소리’가 아니라 ‘가무’ 발표회라는 점인데,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제1, 2회 발표회에서는 모두 ‘춤’이 공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서도가무 발표회>에서는 김정연 문하생 20여 명이 출연했고 김정연이 안무와 연출·주연²¹⁾을 담당했다. 그러나 제3회 발표회부터는 춤 작품은 보이지 않고 모두 서도소리 종목만 소개되고 있으며, 서도소리와 소리 전수생에 대한 이야기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4회 공연부터는 출연자 이름에 서도소리 전수생들이 등장하고 있다.²²⁾ 서도소리 전수생들이 점차 실력을 갖추고 발표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도가무 발표회>의 초점이 ‘소리’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19) 1977년 제 4회 공연 이후로 나타나는 1980년대 서도가무 발표회 기사는 1981년(6월 21일) 과 1983년(8월 29일)에 나타나며, 장소는 각각 국립극장 소극장과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보도되었다.

20) 4회 공연은 27일 낮 2시 1회 공연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1977년 6월 23일.

21) 《동아일보》 1971년 9월 23일

22) 《매일경제》 1976년 5월 10일, 《동아일보》 1977년 6월 23일.

서도소리 후계자 양성에 전념함으로써 춤 활동에 대한 비중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춤 예인으로서 김정연에 대한 기억은 대중, 또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점차 잊혀져 가게 되었다. 김정연은 1980년대 중반에 『한국의 명무』²³⁾라는 책을 통해 다시 건재한 (전통)무용가로서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그녀의 춤을 계승할 후학/전수생들이 남아 있지 못한 탓에 춤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정범태, 구히서, 『한국의 명무』,
한국일보사. 그림 3.



정범태, 구히서, 『한국의 명무』,
한국일보사. 그림 4.

단, 김정연의 고전무용 발표회에서 특기할 사실은 전통춤과 창작춤 종목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춤의 사사 배경을 가진 김정연이 신무용류의 창작 춤을 춘 배경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3) 한국일보사, 『韓國의 名舞』, 1985.

III. 『한국무용도감』에 수록된 춤 작품의 재고와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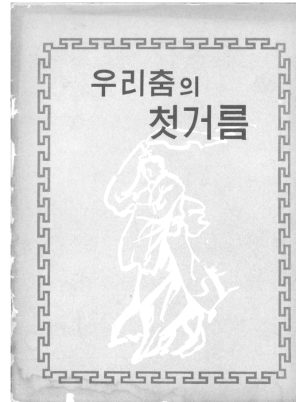
1. 『한국무용도감』의 집필 배경과 수록된 춤 작품의 재고

1971년에 출간된 『한국무용도감』의 저술 배경은 1959년 김정연이 집필한 『우리춤의 첫거름』으로부터 비롯된다.

… 최은희 선생의 총애를 입게 되어 그 부(대한부인회: 인용자 주)의 소속 고전음악 무용반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회보 “풀이”를 발간할 때 고전무용에 대한 전문 상식을 평이하고 흥미 있게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매 호 계속하여 실리게 되면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자는 말까지 부침하는 것이었다. 황무지를 어떻게 개척할까 하는 난감한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부적(부적: 인용자 주) 학구적인 의욕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 내가 “우리춤의 첫거름”을 내게 된 원인이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 『우리춤의 첫거름』, 엮은이의 말 중에서

『우리춤의 첫거름』이 나오게 된 동기는 대한부인회에서 ‘고전 음악 무용반’의 지도위원을 맡게 된 김정연이 회보 《풀이》에 실릴 고전무용에 대한 글을 집필하게 되면서였다. ‘평이하고 흥미 있게’ 써달라고 했지만, 고전무용에 대한 자료와 이론서가 황무지와도 같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김정연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학구적인 의욕을 가지고 불가의 스님들과 민간의 역사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고, 헌책방과 노점을 뒤져 책들을 모아들인²⁴⁾ 끝에 ‘고전무용에 대한 전문상식’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춤의 첫거름』 안에 각 춤에 대한 ‘유래’ 부분에 실렸다.

『우리춤의 첫거름』에는 궁중무용(<춘앵무>, <검무>, <가인전목단>,



『우리춤의 첫거름』,
세문사, 1959. 그림 5.

<무고>)과 민속무용(<봉산탈춤>, <승무(성진무)>), 그리고 창작무용(<천안삼거리>, <원무>, <가야선무>) 등 총 9종목의 춤이 수록되어 있고, 이 춤들에는 각각 유래가 소개되어 있다.

궁중무용인 <가인전목단>과 <무고>의 유래는 당시 국립국악원 악장으로 있던 성경린 선생에게서 취재²⁵⁾했으며, 창작 춤인 <가야선무>는 이광수가 지은 역사소설 『마의태자』²⁶⁾에서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춤은 유래를 참고한 출처를 적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자문과 자료를 통해 참고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유래 부분은 『한국무용도감』에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한국무용도감』에는 궁중무용(<가인전목단> · <무고> · <검무>)과 민속무용(<승무(성진무)> · <남무> · <봉산탈춤>), 그리고 창작무용(<천안삼거리> · <원무(圓舞)> · <가야선무(부채춤)> · <아리랑> · <계월향의 충혼무>)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전통춤의 사사와 활동 배경을 가지고 있는 김정연이 어떻게, 왜 당시 현행되고 있던 신무용류의 춤들까지(<가야선무>, <원무>, <계월향 충혼무> 등)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점이다. 김정연의 공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실제로 이 신무용류 창작 춤들은 1, 2회 개인공연과 서도가무 발표회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김정연은 회보 《풀이》에 연재되는 ‘고전무용의 상식 - 즉 유래’를 기보하다가 현행되는 춤들까지 다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가 대한부인회의 ‘고전 음악 무용반’을 운영하면서 공연 활동을 겸하는

24) 『우리춤의 첫거름』, 최은희, ‘머릿말’ 중에서.

25) 『우리춤의 첫거름』, 13면.

26) 『우리춤의 첫거름』, 17면.

동안, ‘강강술래(<원무>)’²⁷⁾나 ‘계월향(<계월향의 충혼무>)’²⁸⁾과 같은 “임진왜란(忠)과 의기(義妓)의 내용이 담긴”이나, 또는 “아리랑(<아리랑>)”을 배경으로 하는 춤의 유래까지 다루게 되면서 이를 작품화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어쨌든 이 창작 작품들은 김정연 개인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는 당대 한국 춤 작품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우리춤의 첫거름』과 『한국무용도감』에는 김정연 자신이 배운 춤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배운 춤’을 포함해 ‘당대에 주어지고 있던 춤’과 ‘유래를 가지고 있는 춤’을 바탕으로 창작한 춤을 실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춤들은 김정연이 권변에서 배운 기량을 토대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따라서 당시 신무용류의 춤사위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녔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김정연은 『한국무용도감』의 무보 작성을 위해 동작 용어나 무보의 체계, 그리고 춤의 유래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²⁹⁾들의 감



『한국무용도감』, 한국고전음악출판사, 1971. 그림 6.

27) 『우리춤의 첫거름』, 15~16쪽, 『한국무용도감』, 163면.

28) <계월향의 충혼무>는 임진왜란의 미기(美妓)인 계월향의 충혼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조선일보, 1959년 6월 20일, 『한국무용도감』, 217쪽). 김정연의 마지막 소리 제자 박정옥(1965~ . 사단법인 한국서도소리연구보존회 이사장 및 가래현 관장)에 의하면 김정연은 자신이 계월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작품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박정옥 인터뷰 내용)

29) “『한국무용도감』은 춤사위나 명칭이나 설명 등은 김백봉, 한영숙, 강선영 등 전문가들에게 철저히 감수를 받았다.” - 《음악동아》, 1986년 8월호, 171면.

“이 책을 편찬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주신 두 분 선생과 국악원장 이주환李朱煥 악장, 성경린成慶麟 선생의 지도 편달. 악보를 돌보아주신 문교부 국악 편찬위원 이병우李炳祐 선생께 각각 감사를 들이면서 …” 단기 4292년 6월 12일 저자 김정연 씀 - 『우리춤의 첫거름』, ‘엮은이의 말’ 중에서.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하여주신 국악원 원장 성경린

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울였던 그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타인의 자문이 개입되었다고 할지라도 무보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춤의 순서나 동작은 김정연이 권변에서 익힌 내용이 중심이 되고 토대가 된다는 점은 물론이다.

김정연이 해방 후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열성적인 춤 활동을 펼쳤던 원동력의 기반은, 일제강점기 예기(藝妓) 활동을 통해 풀어내지 못했던 춤재능의 표출 욕구 때문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무용가가 됐을 것”³⁰⁾이라는 김정연의 아쉬운 고백이 애뜻하게 다가온다.

『한국무용도감』에는 일제강점기의 작품들로 권변을 통해 학습된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을 눈여겨 살필 필요가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춤은 <성진무>와 <남무>다. 이 두 춤은 일제강점기 기생들에 의해 추어졌으나 현재 자취를 감춘 춤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2. <성진무>와 <남무>의 문헌 검토와 의의

20세기 이후 <성진무>에 대한 기록은 1908년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 관기들이 궁중의 연회나 흥행 극장 등의 여흥 공간에서 춤을 춘 기록인데, 20세기 이후에 가면 관기들이 궁중이나 관아의 공적인 행사 외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대중적인 공연 모습을 볼 수 있다.

“동대문내 광무대에서 음 본월 27일부터 제반 연예를 일신 개량하여 고급 기절한 사를 모방하고 성세풍류를 교연확장하여 첨군자 성정과 안목에 감발 유쾌케 완상품을 설비하얏사오니 급기광림하심을 경요 순서 관기남

씨, 교육위원 김영기씨, 국악예술학교 교장 박헌봉씨, 문화재관리국 국장 허련씨, 연구실에 장건상씨, 고상열씨 제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한국무용도감』, 김정연 ‘머릿말’ 중에서.

30) KBS 2 TV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 “서도소리의 명인, 김정연” 편. (1986년 7월 29일 화요일 방영분) KBS 미디어콘텐츠.

무, 지구무, 가인전목단, 검무, 향장무, 이화무, 승무, 한량무, 성진무, 시사무(矢射舞), 무고, 전기광무, 무동” -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자.

[경회루연향慶會樓宴況] 일반부민一般府民과 내외국고등관內外國高等官 급及 동부인천여원同夫人千餘員이 경회루慶會樓에 회집會集하여 경축慶祝의 誠을 모히니 기순서其順序는 … 여흥餘興 무동舞童, 창부승도唱夫繩渡, 잡가단雜歌團, 기생연무妓生演舞, 포구락拋球樂, 무고舞鼓, 검무劍舞³¹⁾, 성진무聖眞舞, 승무僧舞인디 … -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9일자.

중부 파조교 단성사에서서는 구일 연극을 설형하느니 밤에는 시곡(詩谷) 예기들이 각종 정지(星才)를 보는 중 룡선弄仙의 승진무와 채경彩瓊의 승무로 인하여 관람자의 손뼉치는 소리가 칙칙하며 낮이되면 씨름판을 붓쳐서 관람자의 흥기를 돋는다하고. - 『매일신보』, 1912. 4. 2.

너는 눈도 업고 귀도 업느니, 미일신보사와 경성일보에서 일반 경성 너의 인민을 위로하거 위하야 춘계 대운동회를 주최하고 룡산 련병장에서 굉장히 한다고 … 스동 연흥사에서 흥는 혁신단 … 일본기심의 다름박질, 춤노리, 검무, 일본연극의 각종, 조선기심의 검무, 남무, 승진무, 포구락, 향장무, 승무, 각식 노름바지오. 기타에도 … - 『매일신보』 1912년 4월 14일자.

위 예문은 1900년대부터 1910년대에 보이는 <성진무>의 공연 기사들이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성진무>(또는 <승진무>)와 <승무>가 각각 별개의 춤으로 공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성진무>는 “승무”의 유래설에 따른 하나의 하위 범주의 춤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승무>와 <성진무>가 독립된 춤으로 공연된 사실은 1914년 “예단일백인藝檀一百人(1914)³²⁾의 기사³³⁾나

31) ‘劍舞’의 오기로 보임.

32) “예단일백인”은 매일신보사에서 가무음곡 등 예술이 우월한 인물 일백인을 수집

1915년 ‘시정 5년 기념 조선 물산 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의 각 기생조합 기생들의 공연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성진무>는 1918년부터 서서히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1918년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³⁴⁾의 기록에는 기생들의 특기 중 목록으로 <성진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특이하게도 <승무>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몇 기생 중에 “성진무”의 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한성권번 이금향(李錦香)

기에 : 歌, 羽調, 西道行歌, 南方俚曲, (特)僧舞

“십 이세에 동기가 되야 창원부에 칠년동안 텃정오년 상경하야 … 서관 잡가 령남소리, 모도다 구비흔춤, “곡갈장삼 중에 밭시, 승진무가 제격이오 …””³⁵⁾

한성권번 박비취(朴翡翠)

기에 : (特)南道俚唱, (特上)僧舞

“식중 괴묘 비취시, 옥중 괴묘 비취옥, 기싱 중에 제일 괴묘, 박비취가 … 령남잡가 목청쫓코, 곡갈장삼 승무 출 적, 성진이가 살아온 듯 …””³⁶⁾

하여 연재된 글이다. “예단일백인”에 소개된 예인은 기생 90명, 판소리 창자 2명, 변사 3명, 신과극인 1명(김영희, 「예단일백인 기사 중 기생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0집 제2호, 1999, 139쪽)으로 기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3) “예단일백인”에 기록된 당시 기생들의 춤 종목들은 <입무>·<무고>·무동의 춤>·<남무>·<검무>·<춘양무>·<승무>·<성진무>·<접무>·<향장무>·<포구락>·<정자무>·<번패무>·<허튼춤>·<춘향무>·<정자춤>·<수포구락>·<무산양(춤)>이다.

34) 『조선미인보감』은 1918년 7월에 간행된 책으로 조선 전도(全道)에 있는 예기(藝妓)에 대한 소개서이다. 당시 경성일보사의 사장이었던 아오야나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와 신구서림(新舊書林)을 경영하던 지송옥이 공동작업을 하여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기생들의 가무歌舞 특장 정보가 담겨 있다.

35) 조선연구회 편저, 송방송 색인·이진원 해제, 『조선미인보감』, 민속원, 2007, 한성권번 기생 목록 중 二一쪽(21면) 참고.

『조선미인보감』에는 간혹 <장삼승무>와 <장삼무>가 발견되고 있으나³⁷⁾ 대부분 “승무”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조선미인보감』이 전국의 기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였기 때문에 ‘장삼을 입고 춤추는 중’을 표현한 종목들이 “승무”라는 명칭으로 대표성 있게 통합되어가는 과정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어쨌든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 이금향과 박비취는 <승무>를 특기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성진무”의 형태가 추어졌을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진무’ 형태의 승무’를 춘 기생들은 “(특)” 또는 “(특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 대목이다. 춤을 잘 추어서 붙인 것인지, <승무> 중에도 특수한 형태라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성진무>는 이 이후로 강점기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남무>는 김정연의 『한국무용도감』에 의하면 “남무반이”라고도 일컬어진다고 했다. 또 이름은 “남무(男舞)”지만 남역(男役)과 여역(女役)으로 분장한 2인이 서로 포옹하고 갖은 농염한 미태를 다하는 춤이기에 실상은 남녀무라 해야 타당하고, 이 춤이야말로 한국 고유의 사교무³⁸⁾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1930년대 초반에 <남무>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 고 김동민(金東旻)³⁹⁾ 옹에 의하면 이 춤은, 화관 몽두리를 입고 색한삼을 낀 기생과 궁중 별감처럼 차린 남장 기생이 서로 어울려 춤을 추다가 남장 기생이 상대 기생의 신발을 벗기고 또한 신겨주기도 하면서

36) 『조선미인보감』, 위의 책 三九(39)면 참조.

37) <장삼승무>가 간혹 보이고 <장삼무>가 대정권변 기생에게서 3회 보인다. 그러나 ‘장삼 승무’는 승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춤으로 생각되며, 장삼무도 승무에서의 복식인 ‘장삼’을 나타내는 춤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둘 다 승무와 유사한 춤으로 여겨진다.

38) 김정연, 『한국무용도감』, 105면.

39) 김온경, 『한국민속무용연구』, 형설출판사, 1989, 225~266쪽. 참고로 김동민은 김온경(1938년 출생. 신라대 무용과 교수 역임. 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및 부산시무형문화재연합회 회장)의 부친이며 부산시 문화재위원을 지낸바 있다. 김온경이 『한국민속무용연구』(1989)에서 김동민의 나이를 ‘당 72세’라고 하고 있고 남무를 본 시기가 20세였다고 하므로, 김동민이 <남무>를 본 20세는 193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추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무>는 언제부터 추어졌을까. 김온경은 이 춤이 1910년 일제강점 이후로 교방제도가 없어지면서 궁중무의 의상을 빌어 기방무로 만들어진 춤⁴⁰⁾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무>는 조선 후기 19세기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춤추는 기생들은 머리에 수건 매고/ 옷영산 늦은 춤에 중영산 춤을 몰아/ 잔영산 입춤 추니 무산(巫山)선녀 내려온다/ 배떠나기 북춤이며 대무 남무 다 춘 후에 …⁴¹⁾

위 인용문은 1844년 가사(歌辭) <한양가(漢陽歌)>⁴²⁾에 기록된 내용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관기(官妓)들이 민간의 연행 공간에서 <남무>를 추었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때 <남무>의 구체적 형태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20세기에 들어서도 꾸준히 공연⁴³⁾되고 있어 <남무>가

40) 김온경, 위의 책, 266면.

41) 宋申用 誅, <漢陽歌>, 정음사, 1949, 83쪽.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321면 재인용.

42) 1844년 현종 10년에 한산거사(漢山居士. 1834~1849)가 조선왕조의 수도 한양을 칭찬해 지은 풍물 가사.

43) “동대문내 광무대에서 음 본월 27일부터 제반 연예를 일신 개량하야 고금 기절한사를 모방하고 성세풍류를 교연확장하야 첨군자 성정과 안목에 감발 유쾌케 완상품을 설비하얏사오니 급기광림하심을 경요. 순서 관기남무, 지구무, 가인전목단, 검무, 향장무, 이화무, 승무, 한량무, 성진무, 시사무(矢射舞), 무고, 전기광무, 무동” -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자.

“너는 눈도 얹고 귀도 얹느냐, 미일신보사와 경성일보에서 일반 경성 너외의 인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춘계대운동회를 주최하고 룡산면병장에서 굉장히 흥하고 … 조선기심의 검무, 남무, 승진무, 포구락, 향장무, 승무, 각식 노름바지오. 기타에도 …” - <매일신보> 1912년 4월 14일자.

또한 ‘남무’는 아니지만 1907년에는 <검남무劍男舞>가 추어진 기록도 보인다. - “[경희성연慶會盛宴] 昨日 복귀 경희루에서 桂太郎氏의 餞別宴을 개하였는데 內宴에는 총리대신 이하 각부부원청 칙주임관급 일반 사회 체원이요, 외국빈에는 伊藤 총감 급 각국영사와 일반 紳商이 동부인 부내하였는데 … 한일 양국의 관계가 점차 화평됨을 설명하고 다과를 펼하였는데 여흥을 본국기생의 검남무劍男舞로

당시에 인기 있는, 또는 관기들의 주요한 춤 레퍼토리 중 하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남무> 역시 예기(藝妓)들의 특기 종목을 실은 “예단일백인”과 『조선미인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미인보감』의 경우를 보면 <남무>를 특기로 보유한 기생들은 서울의 경우 한성권변에 3명 · 경화권변에 4명이 있었고, 대구조합에 5명 · 금천조합에 3명 · 창원조합에 1명 · 평양조합에 3명 · 진남포조합에 1명 · 수원조합에 5명 · 개성조합에 1명 · 연기조합에 2명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미인보감』에 실린 20 종목 안팎의 춤⁴⁴⁾ 중에서 <남무>가 4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무>는 전국적으로 권변 기생들에게 상당히 성행한 춤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연은 <남무>를 언제, 어느 권변에서 배웠을까. 김정연이 <남무>를 배웠다면 조선권변으로 옮기기 전 개성권변에서 이장산에게서 배웠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연은 개성 권변에서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춤을 접었기 때문이고, 조선권변에서 활동하던 시기 명월관과 국일관 등의 큰 무대에서 활약한 김정연의 특기는 ‘서도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권변에서 <남무>를 배웠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해방 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조선권변에서도 <남무>가 학습된 바가 있기(하규일)⁴⁵⁾ 때문이다. 즉 김정연이 조선권변에서 춤 공연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거나 보았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미인보감』에 의하면 ‘개성조합’에서도 <남무>가 추어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김정연이 개성 권변에서 <남무>를 배웠을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김정연은 그의 춤 스승으로 이장산을 내세우고 있어 <남무>의 학습은 이장산과 개성 권변의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

이 더 타당할 듯싶다.

이러한 김정연의 춤 학습 배경으로 본다면 <성진무> 역시 개성 권변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김정연은 『한국무용도감』의 전서(前書)라고 할 수 있는 『우리춤의 첫거름』에서 여러 종목의 춤 중에 <성진무>만을 유일하게 무보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점은 김정연이 그 춤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연 스스로도 이 춤을 자신 있게 기억하고 있던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85년, 당시의 전통춤 예인들을 조사한 화보집 『한국의 명무』에서도 김정연은 자신의 춤들 중에 <승무>, 곧 <성진무>를 대표적인 춤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성진무>는 기록상으로 볼 때 1900년대 이후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고, 『조선미인보감』에서 <성진무>가 언급되는 기생들 역시 경기(京妓) 출신들의 권변인 ‘한성권변’에서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만약 <성진무>가 서울을 중심으로 추어진 춤이었다면 김정연은 자신이 개성 권변에서 배웠던 <승무>를 바탕으로 ‘성진무 설’의 내용을 가미했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용도감』에는 <성진무>가 ‘성진무 설(고대소설 ‘구운몽’)’에 따른 극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체로 춤의 기본 진행과 동작은 현행 <승무>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는 1910년대 후반(『조선미인보감』) 이후로 <성진무>가 “<승무>”로 통합해 갔을 가능성과, 이로 인해 춤 또한 서서히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기반이 된다. 또한 1930년대 이후에는 유래설을 바탕으로 한 “<승무>”의 창작화 양상(예: ‘황진이 설’을 바탕으로 한 무용극적인 <승무>)이 나타났던 사실과, 김정연 역시 해방 후 춤 유래 조사 활동과 이를 통한 창작 작업을 했던 이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김정연 춤의 역사적 의의는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사료된다. 어쨌든 <성진무>와 <남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연행되어 온 기생들의 전통춤이라는 점에서 무용사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고, 김정연의 『한국무용도감』

파괴하였더라.” -《황성신문》 1907년 10월 30일자.

44) 단 특기 종목 중 “정재무로才舞”는 한 종목으로 봄.

45) 성기숙, 『근대 전통춤의 산실, 권변 그리고 기생의 참모습』, 《한국 전통춤 연구》, 현대미술사, 1999, 461면.

에 기록된 <성진무>와 <남무>의 무보는 일제강점기 춤의 흔적이나 이장산의 춤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요긴한 자료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 김정연의 춤과 관련한 행적 및 그의 저서 『한국무용도감』에 대해 문헌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1971년 서도소리 문화재로 지정된 김정연은 오늘날 무용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명무가였던 이장산에게 춤을 사사하고 실력을 인정받았던 예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일제강점기에 학습한 춤과 해방 후 창작한 춤들을 『한국무용도감』에 기록해 놓았지만, 서도소리 문화재 지정 이후 춤에 대한 활동이 극히 미약해지면서 무용계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지고 책에 대한 존재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근현대무용사를 풍부히 하는데 일조하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활발히 추어졌으나 현재 자취를 감춘 <성진무>와 <남무>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기록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와 전통시기에 이 춤들이 연행된 양상을 검토해보았으며, 김정연이 이 춤을 춘 시기는 서도소리 활동에 집중한 조선 권변에서가 아니라 그 전 개성 예기조합에서였을 것을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김정연이 개성 예기조합에서 그의 춤 스승 이장산에게 작은 키의 한계를 지적받고 난 뒤 춤을 작파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김정연이 무보로 이 춤들을 기보해 놓았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 두 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무>, <계월향의 충혼무> 등 5종목의 창작 작품들은 1950, 60년대 춤문화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작품들마다 ‘유래’가 달렸다는 점이 특이한데, 창작작품 외에 전승된 춤(<승전무>, <남

무>)에도 이러한 설명이 달려 있다. 이러한 역사적 설명은 김정연이 들을 바 있는 구전 이야기와 여러 서적이 참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작품에 ‘유래’를 붙이는 문화는 당시 무용계에서 유행한 현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유래’를 붙여 춤을 설명하는 현상은 오늘날 무용사(舞踊史)와 관련된 서적이거나 무용개론서, 또는 무용 공연 팸플릿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관행이어서 흥미롭다.

무엇보다 김정연의 춤 연구에서 주목을 끌었던 점은 그녀가 작은 키의 한계로 춤을 작파했다는 사실과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춤에 대한 활동이 미약해졌다는 점이다. 신체를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인 춤에 있어 신체적 조건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 공연 공간의 무대에서도 통용되는 것이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해방 후 등장한 무형문화재제도는 전통예술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전통예술 전승의 중심을 이루던 기생들은 음악 분야의 보유자로 속속 지정되고 해당 종목의 계승에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생들이 보유한 춤 자산은 -김정연의 경우처럼- 음악 공연의 진행 가운데 부수적인 공연처럼 연행되다가 이후 점차 자취를 감추는 형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통춤이 무형문화재 종목을 중심으로 연행되는 현상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과 깊은 연관이 있다.

김정연은 해방 후 새로운 계기를 만나 다시 춤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직접 무용수로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이 배운 춤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 혼신을 불태운 그녀는, 비록 서도소리로 문화재 지정을 받았을지언정 그에 못지않은 춤 열정을 남겼다. 김정연은 춤에 대한 재능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애정과 열정이 지극했다. 이러한 점은 스승이 가르쳐준 춤을 올곧게 받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해방 후 창작 작품에 있어서도 시대의 미감을 충실히 인지하고 표출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무용도감』은 이러한 바탕 위에 탄생했을 것이며,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비록 김정연 개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해도 근현대시기 무용사의 흐름이 여실히 녹아 있는 역사적 증거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연의 춤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인해 소중한 근현대 춤의 한 일면이 후대에 알려질 수 있었다. 이것이 김정연과 『한국무용도감』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무용사적 의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03.
- 김영희,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서울: 민속원, 2006.
- 김온경, 『한국민속무용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9.
- 김정연, 『우리춤의 첫거름』, 서울: 세문사, 1959.
- 김정연, 『한국무용도감』, 서울: 한국고전음악출판사, 1971.
- 조선연구회 편저, 송방송 색인 · 이진원 해제, 『조선미인보감』, 서울: 민속원, 2007.
- 한국일보사, 『韓國의 名舞』, 서울: 한국일보사출판사, 1985.
- 김영희, 「예단일백인 기사 중 기생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0(2), 1999.
- 정경희, 「명인 조갑녀의 민살풀이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9.
- KBS 2 TV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 “서도소리의 명인, 김정연” 편, (1986년 7월 29일 화요일 방영본) KBS 미디어콘텐츠.

- 《동아일보》, 1971년 9월 23일자.
- 《동아일보》, 1971년 8월 13일자.
- 《동아일보》, 1971년 9월 23일자.
- 《동아일보》, 1987년 2월 6일자.
- 《조선일보》, 1959년 6월 20일자.
- 《동아일보》, 1977년 6월 23일자.
- 《음악동아》, 1986년 8월호.

- 《황성신문》, 1907년 10월 30일자.
-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자.
- 《매일신보》, 1912년 4월 14일자.
- 《매일경제》, 1982년 7월 17일자.
- 《매일경제》, 1976년 5월 10일자.

■ Abstrac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n the dance activity of Kim Jung yeon.

- Centered around Korea dance illustrated guide -

LEE, Jeong Noh(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LEE, Ju-Hee(Chung Ang University)

This paper identifies the life of Kim Jung Hyun who was so called kisaeng, a beauty and entertainer in modern times and serves as the study considering what kinds of dances she played going through modern times and the significance works in Korea Dance illustrated guide bear in terms of dance history. Kim Jung Yun who was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for her Korean traditional narrative song in the northwestern provinces (Number twenty-nine. designated in 1971) devoted herself to Korean classical music area after having been designated as cultural asset and became a stranger in dance area.

However, in Kisaeng call-office, she had been estimated to learn dancing under the great dancer, Lee Jang Sin, and make efforts on dance activity until the early 1960's. Her works derived from such learning and creation activity came to be part of Korea Dance Illustrated Guide. This study aimed at studying Kim Jung Yun in addition to her works who had not received attention so far but worked on positive lines and made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in modern dance history in order to reveal her importance status in modern dance history.

Key words : Kim Jung Yun, Korea dance illustrated guide, the foundation of our dance, Nam-Mu, Lee Jang San, Gaeseong Kisaeng Union, Joseon Kisaeng call-office

■ 이 논문은 2016년 6월 24일에 접수되어, 2016년 8월 3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8월 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